

# 文, 호남민심 달래기 ‘릴레이 만찬’ 역효과?

### 광주·전북지역 이어 오늘 전남 국회의원들과 회동 약속

### 박주선·노웅래·김영환 잇단 비판 비주류 불만 되레 확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호남 의원들을 릴레이로 만나며 여론을 듣는 등 뒷발 달래기에 나섰다. 호남·비주류 측의 불만은 오히려 확산하는 양상이다.

문 대표는 지난달 27일 광주지역 의원들과 만찬을 가진데 이어 10일에는 전북지역 의원들과 만찬을 하며 지역민심을 듣고 당의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2일에는 전남지역 의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호남과 비주류 인사들의 불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광주의 박주선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 ‘신들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혁신위가 문 대표를 보호하고 친노 계파 청산을 포기하면서 시간벌기를 하는 상황에서 월더 기대할 게 있는지는 의문들이 있다”며 “당을 살려야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은 당 대표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정면 비판했다.

또한, 친노그룹에 대해 “꼭 자기계파에 소속돼 있는 사람만 대타로 생각하고, 자기 계파에 있는 사람만이 집권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우물 안 개구리식 상황 진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길을 잃어버린 혁신위에 드리는 고안’이라는 개인 성명도 내고 “친노의 시간벌기용”이라는 우려 속에서 출범한 혁신위가 지난 3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혁신안을 발표하였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국회의원 정수확대 등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지거나 기존 안의 재탕삼탕에 불과한 내용들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위가 지금까지 부실한 혁신안을 최종 제출한다면 당은 큰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혁신위가 논의해야 할 사안은 4·29 재보선 등 선거 패배의 원인진단과 책임소재 규명, 야당의 고질적 병폐인 친노패권 청산 및 해소를 위한 해법”이라며 지난 대선 직후 구성됐던 ‘한상진 대선평가위’의 보고서보다

후퇴한 혁신안을 낸다면 해체하라고 압박했다.

비주류인 노웅래 의원도 전날 TBS ‘최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호남에서 불신의 책임’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공동의 책임이 상당히 있겠지만 아마도 그걸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문 대표에 대한 불신이 훨씬 더 크지 않느냐, 라고 지금 보이는 거죠”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또 “이번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제대로 될 것이나, 우리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우리 지도부의 경쟁력이 있는냐 하는 것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도 사실이다”며 “실제로 우리 문재인 대표 중심의 리더십을 갖고 박근혜 불통, 일방독주체제를 깰 수 있는, 총선 승리할 수 있는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솔직히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비주류 인사인 김영환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당의 가장 핵심적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회의론이 만연돼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이 분당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대로 가다간 총·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와 이종철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아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김상곤 “현역의원 교체율 높여 세대교체 필요”

### 내년 총선 ‘대폭 물갈이’ 주장... “문재인 대표 퇴진론 바람직 안해”

### “신당론으로 기득권 누리려는 부류 있어...천정배·정동영 함께가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1일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의원 교체율을 과거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며 상당한 규모의 물갈이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국민과 당원으로 부터 외면받는 한 원인은 당의 주요 구성체인 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못했다고 국민이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현역 교체율은

이전보다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 가슴에 외닿는 정치가 되려면 여야 막론하고 세대교체가 활발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새정치연합은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역할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는) 예전과 다른 세대교체가 국민에게 보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진 옹호론에 대해 “우리 당과 함께 하는 분들의 헌신, 희생정신이 살아있고, 앞

으로 그런 판단이나 결단이 나오리라 생각한다”면서 “본인들이 여러가지 겁안하고 판단해서 희생과 헌신 정신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표의 부산 불출마 선언에 대해 “만약 지역구 주민이나 국민이 출마가 정당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본인이 그런 요소를 감안하지 않았느냐”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필요할지라는 질문에는 “문 대표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선당후사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문 대표 퇴진론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바로 문 대표 교체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당내에서 신당 및 분당론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 움직이는 분들도 없지 않다”며 “당을 기득권을 누리려는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이부의 신당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신당 움직임은 지속되리라 본다”면서도 “천 의원이나 정동영 전 의원은 당 혁신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분들이며 결국 포괄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공적연금특위 첫 회의...위원장 강기정 의원

### 여야 간사 강석훈·김성주 의원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광주 북 갑) 의원을 공식 선출했다.

또 특위 여당 간사는 강석훈 의원이, 야당 간사는 김성주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특위는 전문위원의 경과 보고를 듣고 향후 회의 계획도 논의했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도 빈곤하지만, ‘삼포세대’ 50대 베이비부머



등 미래세대 노인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노후 빈곤해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중이라는 점을 감안, 이달 말께 2차 회의를 열어 신입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기로 잠정 결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가라온지

### 천정배, ‘호남 역사문화공원 조성 위한 제안’ 토론회

무소속 천정배 국회의원은 12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호남 역사문화공원 조성 위한 제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문화예술의 고장 광주에 호남의 정신을 기리고 정체성을 배울 수 있는 호남 역사문화 공원을 만들자는 취지로 열린다.

기조발표는 전남대 건축학과 천득영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희우 호남대 조경학과 교수, 선재규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정성규 도시문화집단CS



대표가 참여한다. 천정배 의원은 “호남은 한국 역사의 중요한 길목마다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면서 걸출한 인물들을 낳았고, 이들은 외세에 맞서 민족 자존을 지키고 독재의 폭력에 대항해 민주주의 역사를 열었다”며 “이번 토론회가 뜨거운 저항과 실천의 역사를 가진 호남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기쁨을 여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개호, 국회 ‘장성 차돌복숭아 판매전’ 적극 홍보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주최한 장성 차돌복숭아 시식·판매전에서 350박스가 모두 팔리고 300박스는 전량 주문 판매됐다.

이 의원이 장성 진원농협(조합장 이강노)과 함께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차돌복숭아 특유의 ‘단단한 달콤함’을 극찬했다.

정 의장은 “올해가 과일 풍년이지만 농가에서는 가격 하락과 판로 문제가 크다”며 “농민들의 걱정을 덜고자 이런 행



사를 마련해준 이개호 의원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은 “불태산 자락에서 생산한 장성 차돌복숭아는 일교차가 커

다른 복숭아보다 더 단단하고 당도가 높다”며 “차돌복숭아의 맛과 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심학봉 징계안’ 신속 처리

### 윤리특위, 숙려기간 적용 안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출신 심학봉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서 처리기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및 여당 간사 대행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을 만

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일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며 국회법상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어 오는 25일 이후야 윤리특위 전체회의 소집 및 징계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예외조항을 적용해 징계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에 윤리특위를 개최해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한 뒤 즉시 윤리심사자문회의에 회부함으로써 징계안 처리를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